

사설

2012년 새해 우리나라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자리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라고 하겠다. 고성군도 새해 역점 시책으로 일자리창출과 경제고성 실현, 농어업의 육성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희망찬 소식이 전해졌다.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가 어려운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인 지난 5일부터 전지훈련팀이 고성을 많이 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흥익대, 송호대, 안동과학대 등 대학교축구팀과 인양공고·통진고·대건고·중경고·중동고 등 고등부축구팀 총 8개팀 500여명이 고성군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이 이처럼 동계훈련장소로 각

광을 받는 것은 한겨울에도 산·바다·호수 등 체력단련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맛깔스런 음식과 풍부한 숙박시설 및 우수한 경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간성과 토성에 천연잔디구

축하다는 게 축구인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고성군은 축구장 사용과 종합체육관 및 거진 국민체육센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특별 대항시 관내 심판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런지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고성이 최북단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추운 게 아니며 오히려 해안가여서 겨울철에 내륙보다 따뜻하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대학축구대회를 여러 차례 유치한 양구군처럼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도 새해 우리 지역을 찾은 축구 동계훈련팀들에게 친절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내년에도 다시 고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대해야 한다. 바가지요금과 불친절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 보다 적극 나서야

장 2면과 거진·현내·죽왕 등 4개 읍면에 5면의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인프라가 비교적 잘 확충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활동은 다소 부

고성지역의 전지훈련장 적격 홍보와 큰 대회 유치 활동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매년 고성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축구팀 관계자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축구팀 관계자들이 고성하면 추운 지역이라 생각해 동계훈

지난해 11월 30일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고성군 통합반대를 위한 투쟁에 심지를 붙였다.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는 5명의 기관 단체장들이 공동대표로 선정되어, 반대 서명운동 및 홍보, 킥기대회, 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통합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이 있다면 찬성하는 측도 있을 수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성군 내부에서 통합반대와 찬성을 명분으로 한바탕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듯한 느낌이 든다.

고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이러한 형태의 전투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전리품도 없이 지역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주고 끝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계속 방관하고 있으면 안된다. 이제는 고성군이 나서야 한다.

반대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리는 고성군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통합되면 고성군이 주변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는 고성군민을 설득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반대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 반대 논리중 하나인 “고성군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속초와 양양과는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보인다. 속초·양양·고성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로 1919년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면서 죽왕, 토성면이 양양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양양군의 토성, 죽왕면이 다시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속초·양양·고성지역은 간성군과 고성군이라는 행정구역명으로 통합을 반복하였으며, 토성면과 죽왕면은 조선시대에 고성군보다는 속초와 양양지역을 포함하는 간성군이였다. 특히 1919년 이후부터 1963년까지는 양양군이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역사적·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반대논리는 힘을 잃게 된다.

통합 반대하는 논리중 또 하나는 통합되면 고성군이 변두리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 논리 또한 현재 속초의 변두

리로서 속초와 한 생활권으로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오고 있는 토성면과 죽왕면민들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고성군민의 상당수가 속초로 빠져나가 사실상 고성군은 속초의 변두리가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속초와 통합되어도 잃을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통합된 속초를 이끄는 지도자는 고성지역을 일방적으로 변두리로 내몰기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상식적이지 아닐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중에서 수원·화성·오산 통합과 관련해서 화성시 동부지역과 서부 지역간 찬반 대립이 극심해 지역분열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안양·군포·의왕 3개시는 우리와 비슷하게 안양이 통합을 추진하고 의왕시가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통합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통합이 된 지방자치단체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예도 있다.

반대로 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예도 있다. 청원·청주는 두 지역의 시민단체가 통합건의를 청주시에 제출한 상태이고, 동해·삼척·태백시·울진군과 강릉육계면 통합은 찬성이나 반대나 차원을 넘어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를 두고 경쟁중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지금 반대론자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반대논리는 찬성논리에 대항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하지만 찬성론자들이 조직화되어 반대론자들과 맞서기 전에, 그래서 주민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후유증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고성군이 미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여 찬성논리를 잠재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는 고성군이 좋아 고성에 정착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성군이 속초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고성군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 상황을 시점으로 주민갈등만 증폭시켜, 고성군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 사는 이야기

김정균 칼럼위원



속초와의 통합논의, 이제는 고성군이 나서야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에서

고성군청 등 고성지역 기관들이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업무를 시작했다. 고성군의 경우 2일 문화의집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진데 이어 4일부터 6일까지는 실과소별로 새해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올해 일자리 창출·경제고성 실현, 소득과 경쟁력이 증폭되는 농·어업 육성,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구현, 문화·관광·체육의 르네상스 실현 등을 주요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계획된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